

□ 놀이문화속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들

80년대 학생들이 문화체육국주의에 반발해 그들의 독특한 놀이문화를 함께 만들었고, 또한 잔디밭에서 모여 통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르던 일을 생각해 보자. 정겹고 공동체적인 느낌이 물씬 풍기지 않는가. 그러나 지금의 놀이문화는 상업주의가 만들어 놓은 개인주의와 모든 놀이문화를 돈으로만 향유하려는 소비향락주의가 일상화되고 있는 것이다



▲과거 공동체적으로 놀이문화를 공감했던 때와는 달리 요즘은 개인중심적이고 소비향락적인 놀이문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답답한 이 공간 '벗어나고 싶다'

'놀이'란 가끔씩 자신을 정숙지 못한 모습으로 호트르뜨리고 싶은 충동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일상생활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여진지 오래다. 주위를 살펴보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놀이욕구를 해소시키기 위한 공간들이 많다. 미장원, 사우나, 백화점, 패스트푸드점 등 그 종류에 있어서도 다양하다. 이곳들은 소비라는 측면이 많이 부각된 장소이다. 그러나 소비를 하지 않고도 놀이욕구를 해소시킬 공간은 많다. 한강고수부지나 여의도광장(지금은 공사중이지만) 그리고 간단한 스포츠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이에 해당된다. 이같이 사람들의 소비욕구를 충족시키는 공간은 자본주의 체제가 만들어낸 상행위라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공간은 사람들의 놀이욕구를 담보로 소비를 부추기는 장소가 되어가고 있다.

그러면 대학내 놀이공간과 문화는 어떨까. 90년대에 들어서면서 공동체적으로 놀이문화를 해왔던 이전과는 다르게 개인의 흥미와 재미를 위주로 하는 놀이문화가 형성되었다.

학생들의 재미와 흥미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놀이문화라 하면 스포츠이고 이는 자본주의가 낳은 절묘한 놀이기능 중 하나이다. 운동장을 살펴보면 학생들 대다수가 농구장에 몰려있다. 얼마전 인기를 끌었던 만화책 '슬램덩크'나 작년부터 실시한 프로농구가 많은 영향을 끼쳤을 말할 필요도 없다. 삼삼오오 모여서 공하나와 골대를 두고 땀을 흘리며 농구를 하는 모습을 보면 그 인기를 실감케 한다.

또한 요즘에 본관이나 운동장 주위에서 야구를 하는 모습도 종종 눈에 띈다. 그만큼 박찬호나 선동열의 경기가 우리의 놀이 문화에 많은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스포츠의 경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따르게 된다.

놀이문화를 얘기하자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방(房)문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방(房)'이라는 것에 익숙해졌다. 비디오방, 노래방, 그리고 최근 새롭게 자리잡은 전화방 등이 놀이문화의 새로운 주축이 되어 가고 있다. 그만큼 학교밖에서 학생들의 놀 공간이 한정

되어 있다는 얘기다. 학생들이 4-5명 모이면 대체로 술집으로 발걸음을 향한다. 술집 한 구석에 5명남짓한 공간에서 술을 마시면서 정다운 얘기를 주고 받는다. 겨우 신문지 3-4장 펼쳐놓은 5평만한 공간에서 술집에서 나오면 2차로 가는 놀이공간이 노래방이다. 이곳에서, 술취한 학생들은 답답하고 좁은 공간에서 서로가 마이크를 잡고 신명나게 노래를 부른다. 또한 수업이 없는 공간에서 학생들이 많이 가는 곳은 어디일까 생각해 보면 아마 심정팔구는 당구장일 것이다. 당구장은 당구대와 공, 그리고 큐대가 있을 공간만 있으면 된다. 담배연기가 자욱한 이 좁은 공간에서 4개의 공에 몰두한다.

무엇이 문제인가? 놀 공간이 부족하다. 노는 것은 항상 공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학생들은 분주하게 이공간, 저공간을 움직인다. 공간을 벗어나는 수 없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놀이공간이 소비, 향락문화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향락문화로 빠져들게 만들어 버린 것은

학교와 놀이공간들을 잘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이는 학생들이 상업공간에 의해 설득당하고 있는 것이다. 주체적으로 선택하지 못하고 상업주의에 의해 창조된 놀이문화속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말이다. 사회에 만연되어있는 소비향락주의가 대학의 놀이문화에까지 깊숙히 침투해 있다는 것은 유감스런 일이다.

80년대 학생들이 문화체육국주의에 반발해 그들의 독특한 놀이문화를 함께 만들었고, 또한 잔디밭에서 모여 통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르던 일을 생각해 보자. 정겹고 공동체적인 느낌이 물씬 풍기지 않는가. 그러나 지금의 놀이문화는 상업주의가 만들어 놓은 개인주의와 모든 놀이문화를 돈으로만 향유하려는 소비향락주의가 일상화되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과거를 뒤돌아보며 지금의 놀이문화 그리고 공간들에 대해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놀이문화에 대한 끊임없는 토론이 형성되어야 한다.

(김동혁기자)

시리즈-경희 유산을 찾아서

⑮ 탈놀이와 대동제

우리나라에서 10월은 처음 하늘이 열린(개천)달이며 새로운 곡식으로 신에게 제사드리는 제천의 달이자 왕성한 수확을 이웃과 함께 기념하는 축제의 달이다. 또한 추위와 노년을 대비하는 계절이자 러시아 혁명의 달이기도 하다.

축제는 개인 또는 공동체에 특별한 의미가 있거나 결속력을 주는 사건이나 시기를 기념하여 의식을 행하는 행위로 사회공동체를 결속시키는 역할을 해 왔다. 한가위는 대표적인 가을의 축제이다.

경희학원의 축제는 학술, 문화, 체육 행사로 볼과 가을에 행해지는 학원제인 대동제가 있다. 대동(大同)은 '예기(禮記)' '예운(禮運)' 편에 나오는 말로 유가가 지향하고 있는 이상사회 즉 유토피아적인 세계를 뜻한 것이다. 이 사상은 중국-한국 등 유교적인 국가에서 변



▲변화의 몸짓인 춤사위

혁의 사상으로도 받아들여 졌다. 그리고 대동놀이는 단결을 굳게 하고 새로운 세계에 대한 신명을 푸는 집단 놀이 의식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대동놀이 속에는 탈놀이와 있다. 탈은 시대적 성격을 반영하여 각 시대의 인물들을 계승, 남녀, 연령별로 두루 보여 준다. 탈놀이의 춤사위는 자연의 모방과 풍년을 기원하는 농경행위와 결부되었던 것이 점차 민중들의 의지가 담긴 상징적으로 구성된 민중적 미감에서 나온 예술적 표현운동으로 발달하여 강렬한 슬픔과 억눌림을 요동시키고 나아가 화해와 자유의 세계로 승화시키게 되었다.

풍성한 수확을 기념하여 힘을 다지는 경희학원의 대동제는 경희인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주고 그 속에서 변혁을 꿈꾸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자세를 다지는 것이다. 우리는 대동제 가운데 일체감을 다지며 우리 대학이 반세기간 이룩한 학문과 사회봉사의 결실을 확인하고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전진을 다짐해야 한다.

오 일 환 (중앙박물관 연구실)

캠퍼스 예술인

□ 경희극회 회장 이정현(사회 2)

'무대위에 펼쳐진 내 삶'

'대학문화'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연극이다.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며 사람에게 감정을 일깨워주는 연극. 경희극회 회장 이정현(사회2)은 무대에서 삶을 느끼는 젊은이이다.

"대학 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고 싶었는데 그 중에서 연극을 택했어요. 대학에서는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후회가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지만 여러사람이 모여야 하나의 작품이 되는 연극은 힘든 점이 많다. 누구 하나라도 빠지면 연습공간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 양은 "그래서 집단예술로서의 연극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연극을 처음 시작할 때는 어려운 점도 많았

다. "처음에는 연습량이 많고 집에 늦게 들어가서 부모님의 반대가 있었지만 그런 것들은 점차 대화로 풀어 해결했다. 그러나 가장 어려웠던 것은 연습공간 확보였다." 중앙 동아리임에도 불구하고 학생회관 소극장을 마음대로 쓰지 못해 연습하는 시간보다는 연습할 곳을 찾는 시간이 더 많았다고 양은 안장적으로 마음껏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터뷰 사진을 찍을 때 어색한 표정을 짓던 양은 무대위에 올라서니 전에 없이 당당한 모습으로 변했다. 그 모습을 보니 연극이 그녀를 바꾼 것이 아니라 그녀가 연극으로 자신의 본 모습을 찾은 것 같았다.

그녀는 오는 11월 3일부터 6일까지 공대 시청각실에서 공연되는 '혀'라는 작품에 출연할 예정이다. 2개월의 준비기간이 있어야 하나의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연극.

이양을 비롯한 경희극장 식구들은 자신들의 노력을 많은 학생들이 공연장에서 직접 평가해 주길 원하고 있다.

(김윤택기자)

문화단신

웅띠위에 개띠 별난 부부의 사랑 이야기. 첫 만남부터 결혼, 신혼여행, 출산, 결별, 재결합을 거치면서 결국엔 사랑과 화합을 이루게 된다는 내용으로 코미디와 감동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고급 폭소극이다. 대사의 연극언어적인 탁월성을 우선적인 특징으로 하는 이민 화씨가 직접 쓰고 연출한 연극 '웅띠위에 개띠'는 오는 31일까지 대학로극장(이화동사거리)에서 공연된다. 문의는 764-6025이다.

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세계 음악계를 석권한 유대음악인들의 상징, 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거장 주빈메타의 지휘로 오는 25, 26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역사적인 내한공연을 갖는다. 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이번 첫 한 공연은 천재 첼리스트 장한나와 주빈메타가 직접 선택한 하프스트 막장이 협연자로 나선다. 문의는 598-8277이다.



미래를 이끌어갈 힘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98년 대졸신입사원 그룹공동모집 안내

- 모집부서 및 인원**
-모집부서:인문사회, 이공계 관련 전학과
-모집(예정)인원:400명
- 응시자격**
-1998년 2월 4년제 대학(원) 졸업예정자 또는 기 졸업자
-1970년 1월 1일(석사)는 6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서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병역특례 모충역 해당분야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군 미필지도 지원가능하여 자세한 사항은 모집요강 참조
-해외여행에 참가하지 않은 자
- 전형방법**
-1차:서류전형
-2차:직접(인성)검사, 면접 및 신체검사(2차 전형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하고, 일정은 1차 합격자 발표시 별도 공지함)
- 제출서류**
-인사 지원서(당 그룹 소정양식)
-대학 및 대학원 전학한 성적증명서(재학중인 현재까지의 전학한 성적증명서)
-TOEIC, TOEFL, JPT 등 대외 공인 외국어 성적표 사본(취득자에 한함) 각 1부
- 지원서 교부 및 접수**
-기간: 1997년 10월 23일(목) ~ 10월 30일(목) 09:00~17:00
(단, 토요일은 12:00까지) *일요일(10/26)은 교부 및 접수하지 않음

교부처

지역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전원

교부처

지역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전원

교부처

지역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전원